東亞日報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新聞定價 壹個月八拾錢 壹個年……
廣告料金 五號活字拾四字壹行金壹圓 …

學務當局의 愚를 笑하노라
教科用圖書의 沒常識한 檢閱에 對하야

一

目下 朝鮮內의 各學校에서 使用하는 教科書는 此를 大分하야 總督府의 編纂이나 檢定에 依한 것과 日本文部省의 檢定에 依한 것의 二種에 分할수 잇는데 各學校에서 엇던 教科書를 採用코저 할 때에는 總督府의 編纂이나 檢定에 依한 것은 屆出의 節次만 行하면 使用할수 잇스나 文部省의 檢定에 依한 것은 반드시 總督府의 檢閱을 經하야 採用의 認可를 得한 後에야 使用케 되는 것은 一般이 周知하는 바어니와 이제 그 檢閱의 內容을 仄聞하건대 絶倒할 것이 만이 잇고 奇怪한 것이 不少하다

二

이제 數個의 實例를 들면 三省堂發行 東京高師教授 中村久四郞氏著 外國歷史教科書 東洋之部는 日本에서도 多數히 使用되는 教科書인데 此를 朝鮮總督府에서는 不認可로 하얏스며 英語讀本中에 故神田乃武氏의 著 크라운 리더 - 는 可而日本全國의 中等學校에서 使用치 안는 곳이 업다하리만큼 普遍的으로 使用되는 것인데 朝鮮總督府에서는 그 第四卷이 不認可가 되엿스며 故厨川白村氏의 著 챔피온 리더 - 는 第二卷이 不認可가 되고 觀美堂發行의 초이스 리더 - 는 第五卷이 不認可가 되얏다 한다

三

그 不認可로 한 理由는 當局에서도 言明치 안는 것이니 仔細히 알기 어렵거니와 吾人의 想像에 맛겨 一二의 推理를 行하여 보면 그 不認可의 理由는 以下의 두가지에 不外할 것인가 한다 即 現在는 教科書 自體가 教科書로 使用될만한 價値가 업다는 理由일 것이다 그러나 當局이 만일 이것을 不認可의 理由로 하엿다 하면 吾人은 到底히 首肯키 不能하다 何故오 하면 만일 그 教科書가 教科書로 使用키에 不適하다 하면 總督府 學務局에 잇는 檢閱官들보다도 學識이나 經驗이나 頭腦가 훨신 明晰하고 豐富한 檢閱官들을 가지고 잇는 文部省에서 벌서 檢定을 與하얏슬 理가 업고 또한 先進의 地位에 잇는 日本의 各學校에서 多數히 그것을 使用할 理가 업는 것이니 그것은 아모리 생각하여도 不認可의 理由가 되지 못할 것 갓고 그러면 둘재는 教科書 가운데 朝鮮사람이 알아서는 아니될만한 것 換言하면 朝鮮의 統治를 非難한 것이라든가 또는 朝鮮의 法律에 違反되야 朝鮮의 安寧秩序를 紊亂하는 것이라든지가 써 잇는 것이 그 理由가 되지 아니치 不能하다

四

그러나 以上의 列擧한 教科書中에서 吾人은 아모리 張目注視를 하야 가지고 그러한 句節의 存在한 가를 살펴보앗스나 도모지 그러한 句節이 보이지 아니하얏다 다만 억지로 學務當局者의게 有利하도록 그 不認可의 理由가 되리만한 것을 求하야 본 즉 中村氏의 東洋史에는 朝鮮獨立이라는 小題下에 朝鮮은 馬關條約 以後에 完全히 獨立을 宣布하고 또한 日本이 朝鮮의 獨立을 爲하야 多大한 盡力을 하얏섯다 하는 句節이 잇스며 초이스의 五卷에는 米國의 파트릭 헨리의 獨立演說이 잇스며 크라운의 四卷에는 米國의 獨立을 宣言하든 史實이 조곰 書在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이 그 不認可의 理由가 되엿다 하면 吾人은 學務當局者의 沒常識을 憐憫히 녀기지 안을수 업다 何故오 하면 一八九五年의 馬關條約과 一九一〇年의 倂合條約은 비록 內容上으로 보아 넘우 懸隔이 잇다 하나 史實을 史實대로 쓰는 것이니 何等의 不可가 잇스며 또 헨리의 獨立演說과 北米合衆國의 獨立한 史實은 西洋史를 學讀하는 者는 누구나 아는 것인데 이것을 歷史時間에 알아서는 關係치 안아도 英語時間에 알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아모리 생각하야도 可笑한 일이오 또한 米國의 獨立史가 一冊이나 世界의 書籍中으로부터 全然히 消失된다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그러치 안는 以上에는 英語는 가르처 西洋書籍을 讀解할 能力을 기르게 하면서 그런 史實은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은 … 君等이 아직도 吳下의 阿蒙을 免치 못함을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로다

五

學務當局이여 反省하라 그리고 그 態度를 … 天下事를 … 사람의 小刀細工으로 엇지 … 君等은 그 理를 解하기에 聰明하지 못하냐 … 總督政治의 更張以後 … 佛蘭西革命을 『暴動』이라 하고 米國의 『獨立』을 『建國』이라 쓰고 … 總督府編纂의 『外國歷史』를 必用으로 하지 아니하고 文部省檢定의 西洋史 及 東洋史를 自由로 選擇케 하야 …

日本國債交涉
米銀行과 日代表間

紐育에 在한 日本政府代表者와 紐育銀行과의 間에 日本의 國債發行問題에 關하야 交涉中이라는데 其金額은 不明하더라 (紐育十八日發)

無電問題
具體案內容

無電問題 具體案을 中國政府는 立案하엿는데 內容은 極히 秘密이나 米國은 上海에 日本은 北京에 無電所를 建設하야 三國協同으로 經營하야 何國이던지 其獨占을 取消하는 同時에 無電條約을 發布할터이라더라 (北京二十日發)

孫內閣前途悲觀
財政總長選任無望

王克敏氏가 財政總長을 固辭함으로 後任者를 銓衡中인바 顏惠慶氏를 爲始하야 二三候補에 擬議된 者等이 一切謝絕함으로 孫總理는 其善後策에 就하야 總統과 會見하고 其意見을 求하얏는데 舊曆年末이 切迫한 此際에 財政總長의 人選이 不如意한지라 孫內閣은 벌서 動搖의 前兆가 보이며 其前途는 頗히 悲觀되더라 (北京十九日發)

財政總長彈劾

衆議院 … 氏의 提案인 財政總長 王克敏氏 彈劾에 對하야 十九日 衆議院 審查會를 開한 結果 審查委員長 以下 八名의 委員을 選하야 財政部에 赴하야 不正의 有無를 實地調查하기로 決定하엿더라 (北京十九日發)

國民大會
豫期開催

張作霖氏는 三月一日 國民大會를 奉天에 開할터이엇스나 今回의 大官의 婚禮祝賀를 爲하야 東三省의 大官도 全部來集하엿슴으로 更히 民間의 有力者와 佐官以上의 陸軍士官에게 來奉을 電命하야 二十一日부터 國民會議를 開할 터이라더라 (東京電)

歸化白軍歡迎
成績頗히 良好

露國白軍將校 及 兵士로서 東三省軍隊에 投한 者가 三百名以上에 達하얏는데 彼等은 一切成績이 良好함으로 中國側은 非常히 歡迎하야 露人으로서 歸國을 希望치 아니하는 者는 續々 中國軍隊에 收容하는 中이며 又 中國兵과의 情誼가 深篤함이 無比하더라 (奉天二十日發)

米軍艦墨國派遣

米國海務省發表에 依하면 巡洋艦 『오하마』 外 五隻의 軍艦은 巴奈馬로부터 墨西哥의 『벨구라도』에 向하야 派遣하라는 命을 受하얏더라 (華盛頓十九日發)

比島騷擾稍重大

最히 信用할만한 報道에 依하면 比律賓의 『코로랄』 敎徒의 暴動은 各地方에 蔓延되야 事態가 頗히 重大하야 比律賓全土에 亘하야 支派를 有한바 今日까지 全然 不安이 업든 當地에도 該敎徒의 運動이 勃發하엿는데 軍警隊指揮官 『크라펜스』, 니-칠지아-스』 大佐는 目下 最近에 『코로랄』 敎徒의 虐殺이 有할 듯한 『가오』의 『바카스』 島附近에 駐在하야 十九日 比律賓總督 『우-드』 將軍에게 電報하야 『코로랄』 敎徒는 心情이 頗히 醜惡하야 一見 暴動을 起하는 듯하다 하엿스며 同時에 至急 適當의 援兵을 派遣함을 要求하엿는지라 米國砲艦 『사크라멘트』 號는 旣히 『바카스』 島近海를 巡邏中인데 『바카스』 島의 敎徒 約 六百名은 軍警隊를 攻擊하고자 하야 一個所에 集中하엿더라 (馬尼拉十九日發)

英國側의 對佛注目
佛國의 交通制限에 對하야

獨逸占領地帶에 在한 佛國官憲이 英國軍占領地帶와의 鐵道交通에 對하야 突然 大制限을 行할 旨를 布告하엿슴으로 英國側에서는 非常히 此를 注目한다는 報道는 旣報와 如하거니와 其後 『마이안스』의 報道로 眞相이 判明되엿는데 此에 依하면 佛國은 現在의 狀態로는 英國地帶의 突出地點을 橫切하는 線을 利用할 수가 업슴으로 他線을 經由하는 形便인 故로 其混雜을 防止하기 爲하야 『카-론』 行의 鐵道運輸에 大制限을 加할 必要가 起햇다는데 佛國當局者는 今回의 命令은 如何間 斷線의 使用權을 得하기까지는 絶對로 撤回치 안켓다고 聲明하엿는데 伯林으로의 半官的 報道에 依하면 獨逸은 佛國의 新命令은 最近 獨逸當局과의 交涉의 際에 獨逸이 鐵道材料를 佛國에 供給함을 拒絶한 것이 理由라 하더라 (巴里十九日發)

佛軍貨物輸送禁止布告

『카룬』으로의 報道에 依하면 占領佛蘭西軍은 佛蘭西占領地帶와 英國占領地帶間의 鐵道에 關하야 食料品 及 軍隊輸送外 一切의 貨物輸送을 禁止하는 布告를 發하엿다 함으로 當地官界에서는 意外로 思惟하나 目下의 形勢로는 佛蘭西軍이 何由로 如斯한 手段을 取하엿는지 其詳報를 苦待할 뿐이라더라 (倫敦十九日發)

不信任案은 廿九日上程?

帝國議會再開會의 初日은 二十一日부터 開會될터이나 二十一日은 本會議를 開하지 안코 二十二日이 本會議日인데 今年은 政界의 大變局으로 政府不信任案의 提出이 有할터인즉 若 二十二日에 恒例와 如히 議事를 進行하는 時는 直히 同日 議會解散을 免치 못할터이니 如斯히 되여서는 大典이 在邇에 恐懼에 不堪할 바인 故로 屢報한 바와 如히 衆議院은 自發的으로 休會하고 大典을 平穩裡에 遂하고 二十九日의 本會議에서 淸浦首相이 施政方針演說을 한 後에 野黨三派의 淸浦內閣不信任案이 上程될터이요 淸浦首相은 左와 如한 理由로써 解散을 命하게 되리라 推察되더라 (東京電)

近來 政局上에 變化가 來하야 國民信望의 存在할 政黨도 不明瞭히 되는 感이 有함으로 國民의 信望이 院內 何政黨에 最多히 存在할는지 詳細히 하고자 하야 解散을 必要로 함 云々

三派領袖會合
協議內容

政憲革三派領袖會는 二十日午後八時부터 芝紅葉館에 開會하고 各種의 意見을 交換한 結果 左의 協議를 遂하얏더라 (東京電)

一, 政黨內閣을 確立할 事
一, 特權勢力의 專橫을 阻止할 事
一, 此目的을 貫徹키 爲하야 將來 一致의 行動을 取할 事
一, 以上의 趣旨에 則하야 淸浦內閣을 否認할 事

更히 各派로부터 三名式의 交涉委員을 選定하야 今後 憲政擁護의 重大問題에 對한 交涉을 一任하기로 하엿는데 其委員은

▲政友會 橫田千之助, 三土忠造, 小泉策太郞
▲憲政會 安達謙藏, 下岡忠治, 降旗元太郞
▲革新俱樂部 古島一雄, 濱田國松, 秋田淸

「特權勢力 一掃乃已」
革新俱樂部宣言

曩者 山本內閣이 組織되자 此에 援助하야 內外의 根本政策을 樹立하고자 하엿스나 突發의 凶事가 有하야 內閣의 崩壞가 來하자 淸浦內閣은 敢히 官府의 別을 辨치 안코 貴族院의 一廓을 基礎로 하야 其成立을 遂行하엿다 立憲政治下에서 大權의 發動은 必히 一般國民의 政治意識과 相合할 國務大臣이 輔弼의 任을 完了하는 與否는 此를 國民의 輿論에 照할 것인데 再次의 優詔를 仰受하야 皇宗의 際遇를 銜하고 衆議院의 解散을 高調케 함과 如함은 憲政을 無視하며 時代에 逆行하야 國民을 侮蔑하고 階級爭鬪를 激成하야 累를 皇室에 及케 하는 者가 아니고 무엇일가 吾人은 先히 淸浦內閣을 擊破하고 元老를 廢하야 憲政의 基礎를 確立하야 時代錯誤의 特權勢力을 一掃코자 하노라 (東京電)

新政黨의 初協議

新政黨의 四領袖는 二十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서 地方으로부터 上京한 院內外의 諸氏와 懇談을 遂하고 更히 新黨組織의 重要決議를 하고 役員을 內定後 對議會策으로의 宣言 政策 政綱의 發表는 二十四五日頃 擧行할 立黨式에 議하기로 하고 又 議院에 對하야 新政黨의 通告, 議場의 變更을 要求한 役員은 左와 如하더라

中西六三郞, 櫻內幸雄, 鈴木義隆, 大道寺慶男, 大石大, 高野毅, 川原茂輔, 伊坂秀五郞

絶對多數劃策

新政黨은 來總選擧에 少하여도 二百五十名의 候補者를 擧하야 議會의 絶對多數를 得하고자 劃策中으로 其立候補者에 對한 補給을 三級에 分하야 當選確實한 者에게는 一萬圓을 補給하고 以下順次 此를 援助할 터이라 (東京電)

山本內閣期待
新政黨의 劃策

新政黨에 對하야 政府 及 研究會는 表面 第三者와 如히 裝하고 잇스나 實際는 積極的의 援助를 與함은 明白한 事로 過日來 鈴木法相, 小橋翰長, 大木伯, 川原, 上野의 各代議士가 屢々히 各處에 集合 謀議를 하는 中이니 即 此等會合의 主題는 議會解散後의 善後措置는 勿論이오 解散後의 總選擧에 對하야는 水野內相 配下에 在한 床次氏等과 氣脈을 通하야 巧妙한 選擧干涉을 하야 新政黨을 爲하야 各種手段을 講하고 如斯하야 政府는 適當한 時期에 內閣을 讓渡하야 新政黨의 山本男에게 大命이 降下케 하고 境遇에 依하여는 更히 議會를 解散하야 議會의 多數를 制壓코자 하는 策略이라더라 (東京電)

各派交涉會
對議會策協議

議會 二十二日 以後의 議事에 關하야 二十一日 午前十時半부터 衆議院議長室에서 各派交涉會를 開할 터인바 二十二日은 主로 詔勅에 對한 賀狀奉呈의 議事를 議長과 協議한 後이오 首相, 外相, 藏相의 演說은 中止하고 約一週間의 休會를 할 模樣인데 新政黨은 二十一日의 各派交涉會에 代表를 出席케 하기 爲하야 二十一日朝까지 黨員의 確定되는대로 衆議院事務局에 申出할 터인바 爲先 新政黨이 一名이라도 多數이면 第一黨이 되야 中央에 席을 占하야 從來와 多少의 異動을 見하게 될터이라더라 (東京電)

『斷行件은 斷行』
貴院內閣이 何其乖宜
淸浦首相의 祝賀會答辭一端

肥後俱樂部에서는 十九日夜 上野精養軒에서 淸浦首相의 組閣祝賀會를 開하고 細川護立侯의 祝辭가 有하자 此에 對하야 淸浦首相은 一場의 答辭를 試하얏는데 其中에는 左와 如한 一說이 잇섯더라 (東京電)

世間에서는 頗々히 特權內閣이라고 非難하나 予는 華族이 內閣을 組織하얏다 하야 特權內閣이라고 할수는 업다 華族은 歷代皇室에 對하야 功勞잇는 者의 禮遇이오 特權階級이라고는 할수업다 또 貴族院이 內閣을 組織함은 憲政의 逆轉이라고 하는 者도 잇스나 國家에 兩院制가 잇는 以上 貴族院이 內閣을 組織하는 것도 別로 異常한 것이 아니라 論할 與否도 업시 貴衆兩院의 權限은 同一하야 其間에 何等의 輕重이 업다 先年 樞府에서 兩院權限問題에 對하야 論議하고 上奏한 때에도 陛下씌서 『憲法上 議會의 權限에 對하야 貴衆兩院에 差異가 업다 衆議院은 豫算先議權이 잇슬뿐이라』는 勅旨를 仰하얏다 然한데 衆議院이 아니면 內閣을 組織함을 不得한다 하면 政黨內閣 또한 特權內閣이라고 할수 잇다 大體로 予는 性質이 圓滿하다고 他人도 唱하고 予도 如此히 思惟하는 바 圓滿하다 하야 優柔不斷이라고 하는지는 不知하나 斷行할 것은 斷乎히 決行하고자 하노라

閣議協議事項

二十一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各省의 復舊豫算 及 農務省獨立, 經濟調 …

憲政大會決議
對議會政策

憲政會大會는 二十一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서 開會 加藤總裁 以下 所屬代議士, 前代議士, 常議員 評議員 地方代議員 等 五百餘名이 出席하야 小山幹事長이 開會辭를 述한 後 濱口勝人氏를 會長에 薦하고 議事에 入하야 左의 宣言決議를 滿場一致로 異議업시 可決한 後 役員을 選擧하고 加藤總裁의 演說이 잇섯스며 濱賀長兵衛氏가 祝辭를 朗讀하고 午後二時半 散會

決議

第四十八回 帝國議會開會에 際하야 我黨의 行動은 此를 議員總會의 決議에 一任함

政策

一, 外交를 刷新하야 國權의 伸張을 圖할 事
一, 普通選擧를 即時斷行할 事
一, 綱紀를 肅正할 事
一, 行政財政의 根本的 整理를 行할 事
一, 諸般의 經濟的 施設을 與하고 海外貿易의 發展을 圖할 事
一, 農村振興에 關한 適切의 施設을 行할 事
一, 思想의 善導에 努力하야 民心의 惡化를 防止할 事
一, 敎育의 改善充實을 期하고 國民精神의 作興을 期할 事
一, 各種의 社會保險 制度를 設하야 其他 社會政策을 實行할 事
一, 震災善後處分을 完全하야 帝都復興의 促進을 圖할 事

計量正確方法
商議所의 答申

商業會議所는 京畿道知事의 諮問한 『商品去來上 計量을 正確히 할 方法』에 對하야 左記와 가튼 答申을 二十一日에 提出하엿더라

第一, 去來上 商品의 計量을 正確케 할 方法

左記事項을 嚴施할 것으로써 그 完全을 期待할 수 잇다

(甲) 規格의 統一을 圖할 事
(乙) 現行法과 가치 度量衡制度의 併用을 廢하고 比較的 完全한 一制度(米突法制度)로 統一하야 이를 可及的 速行케 할 事
(丙) 商品의 容器 及 包裝에 記載함을 …
(丁) 物品을 販賣할 時에 買主에게 …
(戊) 通帳制度의 改善

第二, …

紅蔘四萬斤
大正十一年度에

… 人蔘의 數量과 價格에 對하야 最近 一個年의 狀況을 調査하건대 …

產地	通稱	數量	斤價格
米國	花旗蔘	六〇〇〇斤	二圓
日本	東洋蔘	四〇〇〇	…
朝鮮	高麗蔘	三〇〇〇	…
滿洲	關東蔘	二〇〇〇	…

人蔘栽培

… 明治三十五年으로써 官私 … 栽培는 … 十數年前부터 赤病이라 稱하는 病害가 發現하야 一時 激減되얏는데 其後 栽培方法을 改良하는 同時에 紅蔘專賣法을 施行하야 蔘政의 改善을 圖하고 極力 蔘病防遏에 努力하는 同時에 一面 諸種의 獎勵, 資金融通의 길을 열어 … 大正十一年度의 掘採坪數, 收納水蔘斤數 及 紅蔘製造高는 如左하다

掘採坪數 四七九,三三九坪
收納水蔘 一六三,〇五三斤
紅蔘製造高 四〇,五七一斤

以外에 政府에서 專賣하는 紅蔘原料蔘產地 以外에서도 相當한 產額이 잇서 大正十一年度의 蔘圃坪數 二九八,七九坪, 收穫水蔘 二八,四一一斤에 達하얏더라

消息

▲丸山敬次郞氏 (京城法專教授) 民法研究를 爲하야 滿一年六個月間 英吉利 及 獨逸國在留被命
▲松寺竹雄氏 (法務局長) 日間 東京에 出張被命
▲柿原琢郞氏 (檢事) 同
▲竹場林五郞氏 (檢事) 同
▲辻秀雄氏 (判事) 同

橫說竪說

◇ 北京駐在 日本公使는 上海에 잇는 朝鮮人이 여러가지 政治運動을 하니, 嚴重히 團束하야 달라고, 中國政府에 要求하얏다고 上海法租界가 中國의 法權下에 잇는줄 아는 것이지

◇ 朝鮮總督府產業方針의 唯一 大看板이라는 產米增殖計劃도, 年年의 豫算削減으로, 根本計劃外지 大動搖가 생겻다고. 撥第을 줄어 가면서, 農務局만 獨立하면, 일이 다되는가

自由鐘

投稿歡迎

投稿規定, 一行十四字計算으로 六十行以內에 限함 ▲紙上匿名은 無妨하나 本社外지 氏名과 住所를 明記할 것 ▲皮封에는 『自由鐘原稿』 라 朱書할 事

이게무슨 矛盾?

大邱煙草專賣局 醴泉出張所에서는 지난十二日에 不正葉煙草를 取締한다는 名目으로 『醴泉全市街의 葉煙草를 嚴重히 取締한다는 注意廣告를 붙이고 自由耕作免許證을 가지지 아니한 一般村民의 煙竹과 葉煙草를 만히 奪取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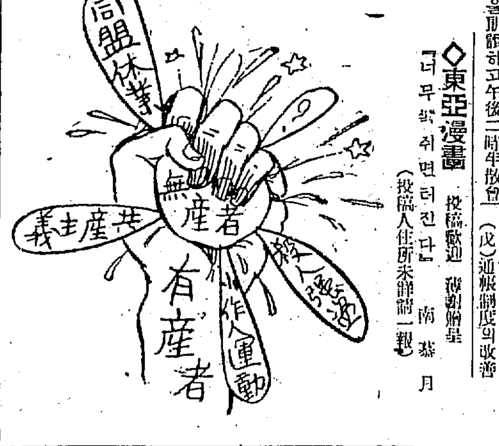
◇ 無免許者가 葉煙草를 가진 것은 押收를 當하여도 할수업는 일이며 不正煙草를 가졋다는 證據가 잇는 때에는 煙竹까지 押收를 當하여도 할수업는 일이라고 할수밧게 업다 그러나 아모 證據도 업시 村民의 가진 煙竹을 奪取한 것도 적지 아니하엿다

◇ 專賣局에서는 賣煙이니 長煙이니 하는 切草를 販賣한다 切草를 販賣하면서 煙竹을 押收한다 하면 그 切草는 무엇으로 피우다 하면 엇더케 하란 말인가 이것이 矛盾이 아니고 무엇이냐 (醴泉一市民)

◇ 자아! 우리는 이러케 爲가 아니고 무엇이며 不法行爲

衛生은 말뿐이냐

淸凉里電車의 東大門出發點에는 交番所의 便所가 잇는 일이 … 電車 終點에다가 便所를 노아둔 것은 果然 衛生에 適當한 일이냐 아니냐 …



◇東亞漫畫 投稿歡迎 南蔡月
『너무 쥐면 터진다』 (投稿人住所未詳謝一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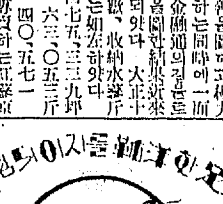
變形된戀愛의極致를보라거든
妖艶한女性의眞相을알라거든 이冊을닑어보시오

惡魔와가티

로마니트하포 原著
懸虛玄 鎮健 譯述

定價壹圓 郵稅十二錢

總發行所 同文書林 京城府公平洞一四六番地 振替口座京城七六四五番
分賣所 中央書林

滿足한洋靴를신으시려면 (?)
印 洋靴

누구든지 갑 비싸 심니다
크로-ㅁ 品 … 堅固하고 …

開業廣告
明法學士 辯護士 孔鎭泰
事務所 京城南大門通二丁目一番地 日生B三〇一室
電話本局一七九九番
一般訴訟事務를受託處理함

ホシ胃腸藥

二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ClibPDF - www.fastio.com

罹災同胞救濟는
지난달이십팔일에 맛치엇다

향자동경진재(東京震災)에 참혹한 재앙을당한 조선동포에게 베풀하야 리재동포구제회를 조직하고 의연금을모집하야 리재동포구제에노력중이라함은본보에 루차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 구제사무를 다맛치고 그명세를 동경소석천구대총판하정천도교회안에잇는리재조선동포위문반(東京小石川區大塚坂下町天道敎會內罹災朝鮮同胞慰問班)에서 발표한바 수입은

一金 參千〇八十五圓拾七錢(京城救濟會) 一金 貳拾三圓八十錢(迎日郡濟) 사쓰 貳百十九枚(神戶信友會) 牛肉罐詰八櫃(總督府出張所) 사이다 五櫃 金팡 三櫃(東亞日報社)

이와가치드러온것으로 相愛會 勞働共濟會 勞友社其他 百七十八人에게상당히 노나주고 기타비용에 전부지출하야 리재동포구제사업은 지난십이월이십팔일로 맛치엇다더라

東京警視廳 主義者警戒

동경가레를경계하야 주의자거취를경계

진재뒤의 동경시내에 남아잇든 주의자분자가얼마남지안엇더니 요사히 차차시내의 질서가회복됨을조차 뒤를이어입경하야 또다시그전과가튼운동을개시코자함으로 섭정궁뎐하의 가례를겨하야 경시텽에서는 봄일간선후책을 세우고자하든중 그들은지난 십구일밤에 거의전부가 돌연히 자최를 감초엇슴으로 경시텽에서는 도무지비밀운동이나 개시하는가하야 그들의간곳을 수색코자다수한 미행순사를각처로파견하얏다 (동경뎐보)

東洋學院事件 被告控訴取下

동양학원(東洋學院)사건으로경성복심법원에공소한 방한민(方漢旻)등네사람은 지나간십륙일에 그공소를취하하엿다함은 그보한바어니와 지나간십구일에는 그사건의관계자십명이 전부취하하엿는데 그중에 김병진(金炳辰) 대규(大奎) 두사람은 비록 본인은 공소를 취하하엿스나 그들은미성년자임으로 그들의부모의승락을어더야완전한취하로인뎡할터이라더라

看護婦의
협회발긔

조선에간호부(看護婦)가생긴지는 일의오래이나 아즉까지 간호부의련직을위하야 간호부자신이 활동한일이 별로업섯다 이를유감으로 역이든시내에잇는 간호부중한신광(韓信光) 김금옥(金錦玉) 정종명(鄭鍾鳴) 등팔씨의 발긔로 이번에조선간호부협회(朝鮮看護婦協會)를발긔하야 오는이십륙일 하오칠시에 시내인사동중앙례배당에서창립총회를 개최할터이라는데 발긔인중 모씨는말하되 『우리조선간호부는 씨여까지 병원의 고용사리를하는외에 아모것도 사회를위하야 일한일이 업습니다 우리도우리의련직을위하야는우리끼리상당한 긔관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뎍으로 활동하는필요가 잇다하야이번에 간호부협회를 발긔한것이올시다 우리는 비록아모힘도업스나 다만『크리미야』의녀신『나이팅겔』의정신을본바다조금이라도 사회를위하야 일하고자합니다 이번모임은 처음되는일이라 경향을물론하고 간호부의직책을 가진사람은 모다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디방에서 참석하기가 어려운경우에라도 이회에입회는다하기를바람니다』하는데 림시사무소는 시내견지동 십륙번디(堅志洞一六)에 두엇다더라

新義州에서 看守暴行
술이취하야

칼을빼여들고 폭행

신의주부형무소(新義州府刑務所)에근무하는 일본인간수우청수일(日人淸水友非秀一)이라는자는 지난십칠일오후 여덟시경에 거리(停車場通路)에서 허리에찻든칼을 빼여들고 오며가는사람들을 치라함으로 행인들이 크게놀나 이리저리 다라나는중 간수는취하야 다리가진사명사명목삼번지(眞砂町四丁目三番地)에사는과부차귀오(車貴五)의집마루간으로 칼을 두르면서 소래를지르며 드러오는것을본 차귀오는 깜짝놀내이 어두어린아해를다리고신부엌문(廚房門)을열고 캄캄한부엌으로피신하얏스며 간수는 방안으로드러와서 면회를닐바로 ... 사파출소에 교발하러가고 밧게서 ... 는중에 밧갓방에 잇든송모는순 ... 서엿보든관중은차귀오의집으로 ... 자 야단치든간수는 그관중을 보고치라고 따라나오다가 도중에서순사의게 잡피여 경찰서로 동행하얏스며 현부소당의 교섭을사용하려든것인바 이것을 으로 돌녀보냇는데 그간수는 청은 본래 술주정이잇는자로서 그날도 동모와술을먹고 그와가치한것이라더라(신의주)

堺利彦氏 病勢沈重
병더친원인은 주의자간의불화로

공산당(共産黨)비밀결사사건에 관련되야 감옥에드러가잇든 계리언(堺利彦)은 중근원화(仲背根源和)등이십팔명의 사회주의자는 작년칠월에보석이되얏는대 두목계리언씨는항상몸이편치 못하야 자긔집에누어잇든중 요사히에와서는 더욱히 병세가침중하야가는고로 가족들의 심려가 매우큰모양이다 그의병세가 이가치 돌연히침중케된 큰원인은 계리언씨일파간부가 예심뎡에서로농정부와의관계를 자백하얏다고 칠도주의자간의 불평이커서 맛츰내계리언 등 간부를배척하고 새로히한단데를 조직한다는풍문이 놉흠으로 그는그로인하야 매우마음을 조리다가 병세가 덧치게된것이라더라(동경뎐보)

大小便運搬에 『탱크』式馬車를使用
종래가치길을더럽히지안코 하로에백여섬식더운반한다

해마다늘어가는 부내의 쓰레기와 대소변을 쳐내어가는 일은 경성부청에서도 큰문제로 처리하며 따라서 청결비를 절약하려고한다 하야 이번에 『탱크』식마차를 만들어 시험하기 위하야 한채는벌써 주문까지 하얏다는데 이탱크식의결뎜은 겨울에거름이 얼게 되면사용할수 업게되는 불편이 잇스나 엇지되얏든지 십삼년도부터 사용하려고 하야 그동안 다수히 사용하려고 하야 그동안 시험도하야보앗다함은 대소변을 운반하는 마차도 개량하야 종래에 거름을 흘니고 다녀서 길이 더럽든 폐가업시 하로에 백여섬식을 더 운반할수 잇다하며 이 마차를 사용하면 이천여원을 절약할수 잇다더라

大同學院有望
녕고탑에설립한중등뎡도학교 / 농장을설시하야고학생을구제

녕고탑(寧古塔)에잇는 대동학원은 조선사람의 이주가점점 증가하야 자녀교육을 주지아니하면 안되겟다하야 이곳유지들이 년래로 비상히노력하야 오던바 이제녕고탑에 잇는 케씨의 선뎍으로 대동학원을 설립하게되얏는데 이것은 실로 북만 조선인 교육계에 일대서광이라하겟스며 동원은 중학교로 작년십이월일일에 개학하고 가장리상뎍교육을 베푸는중이며 특히무산청년의 수학을위하야 농장을설시하고 학생으로하야금 하긔방학을 리용하야 로력하야 일년간에 소용되는학비를 엇게되는데 금년부터는 법제경제(法制經濟)를 증요히 가르쳐서 일반청년에게 청치뎍자각을 이르키기에 힘쓸계획이라더라(봉텬)

나무동에 관한 비용만
오륙백호

지금에는 일년에만여원을 허비하게되는우에 운반하는분량이 적어서 하루동안에 이삼차에 불과하야 여러가지결뎜이 잇스며 마차한채가 한번에 적재하는량이 넉석(石)가량이오 나무동(糞桶)으로 이것을개량하야 열분(尿分)식을 담을수 잇는 『탱크』를 만들어 마차에배치한 『탱크』에 그분량이 적다하야 서울부청에서 절약하면 나무동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절약되고 다시길거리를더럽게하는 결뎜이 업서질 것이라는데 이가치 된부평크식으로하면 현재의 마차를 사용하여도 넉넉할뿐만 아니라 백채대신 에여든네채만 운뎐할수잇스며 따라 경비도하로동안 이백섬식더 ...

오륙백호에 달하얏스며 겨울할령세가 이알흐로도 해마다 격증할것은 그부근에주거하는 조선사람의호수는 실로만호에 갓가우며 그경제상태가 비교뎍 윤택하며 가잇는바 이녕고탑을 중심으로 게지나가는 셰음이라 따라서 자녀의교육도 상당히 주의하게되는 교하나가 업는곳이 업다 물론내디의학교에 비하면 극히불완전하지마는 그소학교에 가임의수 백에달하야 해마다 수삼백명의 졸업생을 내이나 그러나 아직까지상당한 중등이상학교가 업서서그소학졸신 아동의 대부분은 공부를 계속하지못하고 농촌에서귀중한세월을 허송하고 잇슬뿐 이것이 북만재류조선인간의 일대문제가되야서 엇더한 방법으로 도를밧고 이에봉하야 ...

無知全能
잘못하고도큰소리하는게무엇?

◇하나님을 형용하야 전지전능(全知全能)이라고한다 모르시는것이업고 못하시는것이 업다는뜻이다 그어른은 하나님이시니 맛당히 그러하실것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하나님이외에 전능한것이잇다 그것은 경찰이다 권지는못하지마는 적더라도 모르는것이 업는톄하며 기실알아야씰걱(=가령 인권을존중할이라든지 경찰이란 인민의종이라든지하는것은 숫제 모르고 잇는것)—가령 인민을 멸시하는것 남의집에밤에 함부로들어가기 이러한것은 못하는것이 업다 진실로 조선의 경찰은 무지전능(無知全能)의 괴물이다

◇공연한풍설만 밋고 이모저모 뒤어들어와서는 객주집에 방중에 자는사람들을 버스몸을 결박을지어서 수치를보히고는 아모혐적도업스니까 애매한어몃의눈통을꺼리고 수색한다는톰에 장이부서지고 시계가부서지고 그리고는 그저가기는송거우니가공연한사람을 잡아가지고간다

◇이것이무지전능한조선경찰의전지전능한솜씨다 그리고도 경찰이란참조흔것이라 가령칩입죄도안되고 괴구파손죄도안되고 구타죄도안되고 도로혀 어떠마즌놈더러 고맙다마씀이해!—이모양이다

◇부당한욕을 당한이들의 분풀이는 어되서하나 파상된장과 시계는누가배상하노 무지전능한 경찰만세!

五萬圓을橫領한
만텰사원의종적

안동현역(安東縣驛)압만텰사택오호(滿鐵社宅五號)에 잇는 안 ...

日巡査突然被殺
누구의소위인가범인수색중

지나간십칠일오후아홉시경에 사평가경무서(四平街警務署)에 잇는 순사중원겸삼(中原謙三)(三五)은 봉텬성내의성경로(盛京路)서편으로 지나가다가 엇던자에게 즉사하얏는데 그경무서에서는 즉시 그경무서로 보하엿슴으로 그곳관련에서는 즉시전시에비상선을치고 범인체포에로력하엿스나 아직범인은 잡지못하엿스며 자세한내용은 이후에보도할터이라더라(봉텬)

寧安縣知事가 崔桂花를逐出
동족여를모르고 남을모해하다가

녕안현지사(寧安縣知事)가 중국관령의 침략을 최계화(崔桂花)(五○)라는조선사람의 로부터 중국관령에게 가지각색으로 불랑한지조선사람들이 그디방에거주하는것이 엇지할수가업서서 그의행악을 달게바다오든바 근래에 이르러 그가중국관령에게 쫏기여 나올뿐아니라 그현관할내에서 살지못하게 축출명령을밧게 되엿다함으로 그곳조선동포들은 갓거워함을마지아니한다는데이제그 가쏫기여나아가게되원인은농민대표자(農民指導者)로 ... 그디방에농민지도자(農民指導者)보원반동포사이에 매우존경바다오든 백청래(白陳來) ...

府有地를
漢江通의

수십만원에 팔아서

연고자에게매하한다

경성부에서는 래년도예산의 재로운재원으로 부유재산(府有財產)을 처분하기로하야 시내한강통(漢江通)삼번디(부영주택)부근)의 부유(府有)지가되는 만이천여평을 일반에게 팔아버리기로하얏다더라

新天地의 記者服役決定

신텬디(新天地)사건으로경성디방법원에서징역일개년의판결언도를밧고 이에불복한후 경성복심법원에공소한류병긔(兪炳璣) 박제호(朴濟鎬)량인은두사람이 그후공소를 취하하고 복역하기로하엿다더라

訓練運動場의
총공비십오만원을 / 삼년간계속지출한다

두보화훈련원운동장의총공비는 십오만원으로확뎡하얏는데 금년도에십이년도는인제날자로 얼마남지아니하얏스나그왕십년도에계획한것이며 또는이운동장은동궁가례기념(東宮嘉禮紀念)으로계획하는바임으로 다소간이나마 십이년도예산에 계상치안을수가업서서 금년도에는 일만오천원의 추가예산만 올리고 십삼년도 십사년도에각각 칠만원씩 계상하야 계속사업으로 완성할것인바 공사는 불원에착수할터이라고 현재의 운동장을 처리하는동안은 한강통사가다리의 암굴로옴긴다더라

電線흥치다가 感電卽死
고압뎐선을

모르고쥐여서참사

뎐선(電線)을도적하랴다가그만 감뎐이되야 무참히 사망한사람이 잇다 지나간십구일오후 일곱시경에의정부(議政府)부근에서 고경관이 립경한결과 다달의혐의가잇슴으로 그원인을 지세히조사하여본즉 그는 의정부근에잇는 금강산뎐긔주식회사(金剛山電氣株式會社)의 뎐선을도적하랴고뎐주(電柱)에올나가다가그만 고압뎐긔에 감뎐이되야 그와가치 사망한것이 판명되엿는데 오히려공모자가잇는 모양임으로 소관서에서는 활동을계속하는중이라더라

步兵操典印刷
군사교육을위하야

윤괴철씨의귀술로

우리의운동은최후에는군사의해결(軍事解決)을해야할것이라고주장하는것은 다수사람의 공통된의심이다 그럼으로써 군사교육(軍事敎育)에대하야서는학교도설립하야 교수하는일도만흔데 또는외국군사학교(軍事學校)에입학케하야 공부케한일도 만히잇다 그러나 우리사람이 공부하고 참고할만한 서적이 지금까지와 큰하게 출판한것이업든것이 큰유감이더바 군사에대하야 상당 ...

女子에게 作戱하다가
경찰서에인치되어

시내숭삼동(崇三洞) 십삼번디리태식(李泰植)(三〇)과 소격동(昭格洞)사십구번디 김상채(金相采)(三〇)는 두명은 재작이십일밤에 시내계동(桂洞) 십삼번디 김보신(金寶信)(二〇)이라는 녀자를 적선동(積善洞)에서부터 안동네거리까지 추적을하며 작희를하는것을 소관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즉시 인치하얏다더라

金浦江華紅疫
점점창궐한다고

김포군(金浦)의 일부와 강화군(江華)각처에는 작년십이월초순부터 성홍열(猩紅熱)이 만연되야 그형세가 점점창궐하는모양이다

重要問題決議
진주에서열린로동간친회에서 / 소작문데와동척문데가중요안

경상남도진주에서지난십일일부터 삼일동안 삼남에잇는각로동단데와 농민단데가모히어 간친회를열고 로동문데와 농민문데를토의하엿스며 필경 남조선로농동맹(南朝鮮勞農同盟)을조직하기로하엿다함은 본보에 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간친회가 맛친후십삼일에는 로동자와 농민에대하야여러가지문데를 결의하엿는바 로동자의상황을 조사하고 단톄를조직하야 련락을 위하야 강습소를만들고 사상을선뎐하기위하야 책자를 반포할터이며 소작인문데에대하야는 소작료를 보장할일과 농감폐지를요구할일 기타청년문데 녀자문데에 대한중요한것을결의하엿다더라

金泉大火
손해는삼만원

작이십일일 새벽다섯시에 경북도금천(金泉)대화뎡(大和町)에서큰불이낫는데 원인은 불명하나손해는 약삼만원 이라더라

古屋에서 軍銃發見
외국사람살든집에서 / 군용총이발견되엇다

시내 련건동(蓮建洞) 경신학교(儆新學校)에서는최근에운동장을 확장하기위하야 바로 부근이 백칠십사번디 모외국사람의 집을헐어나리는 중인데 재작일그집벽장에서군용총(軍用銃)한개를발견하얏다고 소관동대문서에 계출하얏슴으로 동서에서는 즉시 검사하여본결과 자루가썩어서 매우오래된것이며 최근에 는 별로사용한 의심은 조곰도업다는데 원래 그집은 팔구년전부터 도모지 집으로사용할수 업게되야 그동안썩어 문허지는등 이엿다하며 그총은 아마그전주인이든 모미국사람의 산양총이라더라

東京에天然痘
점점만연중이다

동경의텬연두(天然痘)는점점 만연하야 지난이십일 까지 공에만 새로 드러난환자가 륙명이라하며 관소에서는 크게랑은 발생하얏슴을 근 ... 영전근(松原町)에 엇던남자 또는 자 일명 잇스며 그후에 두산만주(頭山滿洲) 쌍 잇스며 그후에 두산만주(頭山滿洲)에 도산명학자가 발생하얏다하야 동경시령에서는 크게경 ... (동경뎐)

鐵橋破壞陰謀
일본동해도선에서

지나간십일에 동해도선정강판(東海道線淸岡坂)서편에잇는 빈뎡호수(濱名湖)제일철교(第一鐵橋)아래에 다이나마이트를장치하고 철교를폭파하려한음모가 발각되얏는데 범인은 아즉모른다더라 해선(海線)공사에사용하든 측량기계가 분실되야 범인을 수색중이라더라(동경뎐보)

疑問의自殺

정사인가생활곤란인가

시내송월동(松月洞)삼십팔번디에사는구두직공리희래(李喜來)(二三)는 재작이십일오전령시삼십분경에 시내룡산대도정(大島町)사십일번디 녀부윤(呂夫潤)의집에서 치명상을마시고 자살을하얏는데 그는먼저 가튼데도 드러서 잡고 소생이 조선인유곽에 드러가 전부터 만나든 오게화(吳桂花)(二三)이라는 참기와맛나 단도를가지고 정사를하자고 하얏스나 듯지아니함으로 맛첨내그혼자 죽은것인데 본시오게화와는 정사까지 할사이는아니엇다 하며필경 생활곤란으로 그리한듯 하다더라

그럴리업소!

『그러면 가야!』 『그러면 인제 오실수 잇지요 그러면야 잇지오 네? 그럽시요 그리고 다소간 밥을 좀 사주십시요 그러케 하라고 다른집에가서 부탁할 수 있지요 업습니다 다만시골이 ... 으로밀닌데 ... 아모조록 허가하지안는 공공한 집에 잇는고로 그리한것이나 해하지마시요(종로서고등계주임의말)

十月會三回上演

이십이일부터삼일간 조선극장에서 공연을 계속한다는 토월회(土月會)의 데삼회 공연은 금이십일일밤일곱시부터 개최한다는데 각본은 『사랑과죽음』 『회색의달』등이며 ...

三氏滿期出獄

상해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를 선뎐하엿다는 일로 재판을밧고 복역중이든 동 ... 안동현(安東縣)에서 ... 의 언도를밧고 복역중이든 ... 만긔출옥하야 이십일 ...

大杉氏의 追悼會를妨害
정계의문제가될듯하다

동경대삼영(大杉榮)씨의추도회를 개최하기로하엿스나 경찰이 방해하야 ... (상해)

「모히」中毒者가

종로서에구인되며 ...

謹謝

因於事故 年賀缺禮 知舊僉位 幸勿負情

木浦竹洞百拾番地 東源 金東元

感謝廣告

... 中央藥業商會

藥價破天

八味湯 六味湯 大補湯 雙和湯 四物湯 水土丸 六味丸

友助堂

時計眼鏡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二〇五九八一番

電話錯買

廣信金融社

事業

준비하실것

朴家粉 本舖

酒間의美人 기네마盃

京城 二葉商會

特製帽子

高麗毛織中折帽 同 靑年帽 裏人用白色特製帽

東洋染織株式會社

金光書林

大募集

救世藥蘇鐵寶 分賣店及行商員 明信堂藥房

朝鮮帝國大學 附大學豫科

慶南銀行

賞給十圓

平和堂洋粧部

都市計劃에對한 大邱公職者의決議

數次報道한바와가치市民의物論이만흔大邱府都市計畫에對하야大邱의各公職者가去十九日午後二時半樂天에서懇談會를開하고그席上에서各々意見이百出하다가結局如左의決議를하얏는데大邱俱樂部에서는尹洪烈氏가代表로參席케되야同部의決議를陳述한바이有하얏더라

吾人公職者는我大邱의繁榮並府政의振興을期하고和協一致左의方針에依하야都市計畫의完成을期함

右決議함

大正十三年一月十九日

大邱公職者有志懇談會

一、大邱都市計畫은調査委員會의愼重審議를要望함

二、現在決定된市街整理費年次支出七十萬圓은本年度부터着手續行을要望함(大邱)

朝鮮人側態度 原案贊成決議

大邱府都市計畫에對하야는盛히議論이紛々하야一方에서는反對運動을又一方에서는贊成運動을하야各々目的을貫徹하고자或은宣傳或은陳頼等各種各樣의方法으로매우奔走하는中이며就中反對派側에서는府尹排斥問題外지起하얏는데이에對한朝鮮人側의形勢는或者는反對派에加擔하며或者는贊成派에加擔하야一定한鮮明한態度의發表를보지못하얏던바이에大邱俱樂部에서는지난十二日海東園에서新年宴을開하고그席上에서都市計畫에對하야如左히決議한바가잇섯다

一、大邱府의都市計畫은그原案을贊成하는同時에그實現의速하기를希望함

二、市街整理를爲한五個年間繼續事業費七十萬圓은此를現市街整理에用하되都市的施設에가장缺陷이多한朝鮮人市街에先히着手하기를要求함

三、都市計畫委員은朝鮮人日本人各半數로하기를要求함

以上三個條의決議인대此의理由大要는都市計畫原案은朝鮮人日本人이라는各自特殊한利害關係의情弊를離하야比較的公平한見地에서大邱自體의將來를標準으로하야立된該案이大體로보아適切하다는意味下에서原案을贊成한것이라하며第二條의理由는大正十年大邱市街整理並下水道改修工事費한項目으로總督府에出願하야國庫及地方費의補助를受하게된後七十萬圓은將來延長될新市街를整理하는데用하지말고現市街를整理하며그中에도都市的施設에何等의恩惠를被치못한朝鮮人市街를先着手하라는것이며第三은人口數로보나여러로보나半々이適當하다는等의理由인바그것의實行의任에當케하기爲하야十人의實行委員을選定하얏던것인데그實行委員十人이去十八日午後五時海東園에서會合하고實行方法에對하야여러가지로議論한結果交涉委員五人을定하야爲先一次의府尹에對한交涉과各方面에對한觀察을한後具體案을定하자는決議가有하얏다는대일로써前記三個條의決議가大略朝鮮人全體의共通된意思임을따라都市計畫에對한朝鮮人側의鮮明한態度로볼수잇는同時에압흐로如何한運動이起할것이며거긔對한當局者의態度는頗히注目할價値가有하겟더라(大邱)

咸平主要物産

昨年十二月末現在 全南咸平郡廳에서는大正十二年十二月末現在郡內主要物産工藝品製造戶數及生産額을調査하엿는데그統計의數字는如左

品名	製造戶數	生産額
生絲	一四〇	一二七貫
綿布	八、〇〇〇	四八、一〇〇反
麻布	六六〇	一、三三〇
苧布	一、〇〇〇	一、二八〇
紬布	三四〇	一四〇四
蠶業	六六〇	六六、〇〇〇個
竹製	一五〇	三、一八八
金屬	八	二七、五八〇
木製品	四三	六九、四二七
漆器	八	一、一〇〇
莚席	六六〇	二一、一八〇
藥製	一五四	二一、二七八圓
冠物	一七	二四、〇〇〇個
布帛	三、一五三	四四、五〇〇圓
農具	一四九	一、三二〇個
蠶具	一、一一七〇	一五〇
酒	一、一〇六	五、五六〇石
酢	三、一五四	二七七
脂油	四、七七	九、八六八圓
穀粉	三、一五四	一一、四〇〇貫
皮革	二	一〇〇足
瓦料	三	元貫
肥料	三、一五三	四、七五二
其他	三九九	二四、七三二圓

(咸平)

間島敎育會 一月五日에創立

昨年秋에延和汪琿四縣人士가延吉局子街에會集하야敎育研究會發起會를組織한後同會許可願을延吉道々尹公署에提出하얏든바同年十二月八日에許可되야去五日에該會創立總會를開하고諸般事務進行方針과會員募集에關한事와地方巡回宣傳講演隊派送할事를決議하고任員을選定하니氏名은如左 ▲會長金永學▲副會長鄭載冕▲總務宋昌禧▲議事部長尹益善外八部員▲研究部長尹和洙外四部員▲編纂部長金錫觀外三部員▲社交部長陳國賢外二部員(間島)

南鮮勞農同盟 創立總會延期

去番晋州에서開催한南朝鮮勞農團體二十三團體의代表者懇談會를機會로發起된南朝鮮勞農同盟의發起事務所를大邱에置할것과創立總會를大邱에서開催한다는것은既히本紙에報道된바어니와그創立總會의開催日이來二月廿九日이엇던바同日은三月一日의前日임에當局者로부터延期하는것이조켓다는意見에드되어三月五日頃으로延期하얏다는바그前으로未加入團體의速히加入하기를바란다고某發起人은語하더라(大邱)

元山各銀帳末 一月上半現在

元山組合銀行本月上半帳末을見한즉預金二百九十五萬二千九百十五圓貸出五百三十三萬五千五百十圓인데前月末에比하면預金三萬八千二圓貸出十二萬七百三圓의增加를示하얏스며更히此를銀行別로示하면左와如하더라

▲預金之部

鮮銀支店	六三六、八二一圓
殖銀支店	八七六、〇四〇
十八支店	七三五、〇一九
商銀支店	六〇五、三六七
韓一支店	九九六、六四一
合計	二、九五二、九一五
前月末	二、八〇五、九一三

▲貸出之部

鮮銀支店	二、二八六、二八三
殖銀支店	二、二六七、五六五
十八支店	八二一、六六五
商銀支店	六九七、八三六
韓一支店	二六二、一六一
合計	五、三三五、五一〇
前月末	五、二一四、八〇七

(元山)

富川郡造林契

京仁線鐵道沿邊에잇는山野의森林을改良코저富川郡에서는발서부터計劃中이든바거의準備를맛치엇슴으로來二月二日午前十時造林契創立總會를열터이라더라(仁川)

仁川局의業績

지난十二月中仁川郵便局의業績을듯건대郵便物의引受個數一萬八百十二通이오配達이一萬五千八百五十一通이며爲替貯金으로는受入이五千六百八十九口에二十七萬七十七圓이오拂出이三千百八十五口에十八萬九千九百五十四圓이며電信은發信이二萬六百十七通受信이二萬五千八百二十二通이며電話는市內가五十二萬九千五十五通市外가七千五百五十六通이라는바昨年同月에比하면大差가無하다더라(仁川)

義州模範禁酒

義州郡松長面宴武洞有志鄭泳吉氏外五人의發起로去年三月에禁酒會를組織하야以來奮鬪한結果現在基本金이四百餘圓에達하얏다는바그金額을會員들에게低利로貸付하야서로々々些少하나마融通의途를取하는데八十餘名會員中一年間犯則者가僅히五人에不過하는好成績으로始終이如一하게規則을違反하는者가업다더라(義州)

新義州府戶口

新義州府의最近調査한戶口數는如左 ▲朝鮮人戶數二三四一戶男五五七一女四八八七人▲日本人戶數一三一四戶男二二三八人女二〇九七人▲中國人二四七一戶男三二九二人女五九一人인데總戶數는六二二六戶人口男一二一〇一人女七五七五人合一八六七八人(新義州)

漁龍農村事業

安州郡大尼面漁龍里는城內에서四十里나되는村인데居住戶數는百餘戶가되며村內에는舊習에依하야他姓은一人도업고李氏뿐인바洞中老人은新社會를極히反對하나靑年幾人이起하야農村會를組織하고農村改良과私塾改良을務圖하는同時無資力한少年을爲하야夜學으로算術、朝漢、日語等其他常識을義務로敎授하야成績이매우조타하며少年會外지組織하야安州天道敎少年會와連絡을取한다더라(安州)

海州敎育研究

去十八日午前十時에海州第一公立普通學校에서各公私立學校職員으로組織된敎育研究會를開催하고同校訓導梁斗七氏의日語敎授가畢한後卽席에批評會를開하야各其敎授에對한意見을陳述하얏는데敎育發展上將來에多大한裨益이잇겟다더라(海州)

平壤商議評議

平壤商業會議所에서는지난十九日午後二時臨時評議員會를開催하고中平岩藏氏役員辭退의件을協議하얏는데中平氏(奧田派)는辭退를許케되고그代에平松亮三氏(內田派)를選擧하얏다더라(平壤)

江景面協議會

忠南江景에서는去十七日午後一時부터面協議會를開催한바郡廳移轉稅務署設置를運動할일等을協議한後同五時에閉會하엿다더라(江景)

公州面長會議

忠南公州에서는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郡廳會議室에서管內面長會議를開催하고稅務에關한協議와桑苗春栽를協議(公州)

油芚敎堂落成

高興郡東江面油芚敎會에서는今番에禮拜堂落成式을盛大히擧行하얏다는데建築負債三百圓을爲하야當席에서義捐金이三百餘圓에達하얏스며數種의備品寄附도잇섯다고(高興)

客年信川業績

朝鮮鐵道株式會社黃海線信川驛의昨年度業績은再昨年에比하면매우增加되얏는데昨年度乘降人員과發着物貨數는如左

乘車人	五萬五千七百七十六圓
降車人	五萬一千八百七十一圓
發送貨物	八百九十三噸
到着貨物	六百三十五噸

(信川)

元山生牛輸出

元山港昨年中生牛輸出狀況을聞한즉總數三萬三千三百六十八頭價格二十六萬二千四百五十圓인대前年에比하야一千三百四十五頭에七萬四千九百圓의增加를示하얏스며主要輸出高는東京、大阪、山口、廣島、福井、富山、岐阜、岡山、京都等地요其中最多數는山口縣千五百六十九頭東京府五百五十九頭大阪府四百十四頭라더라(元山)

城北禁酒斷煙

德源郡縣面城北里靑年으로組織된城北靑年會에서는昨年十二月부터全會員의決議로禁酒斷煙을實行하는中이며成績이頗히良好한바同里老人들도靑年들의美擧에感하야亦是禁酒斷煙을實行中이라하며若靑年會員中에서라도犯하는者가有할時는出會를命하기로하얏다더라(元山)

咸平優良區長

全南咸平郡守吳光殷氏는管內各面里區長으로公務에熱心하며産業을奬勵하고今般第一期稅金을期日內로完納한最優良한區長을表彰할터인데그區長의氏名은如左 ▲咸平面朴光益李乃化張啓相鄭龍錫▲大洞面金國瑞李官龍▲月也面金璋奕鄭瓚兌鄭光七▲孫佛面牟用淑金元淑金光天▲新光面徐仁淑崔洙樂▲平陵面牟大西盧元名▲食知面朴漢吉▲嚴多面金東澤▲鶴橋面金鍾來鄭然台文九吳永玉羅太云(咸平)

嚴多支部組織

全南咸平郡民大支部에서는去十六日에常務委員李洸、楊宗一兩氏가當郡嚴多面에出張하야多數面內有志를集會하고民大支部組織과趣旨를說明한바滿場一致로贊同하야支部를組織하고任員을選定한바氏名은如左하다더라 支部長尹相晚常務委員金太一池龍相鄭在玉外十五人(咸平)

鶴橋支部組織

全南咸平郡民大支部에서는去十五日常務委員李洸、楊完一兩氏가當地鶴橋面에出張하야多數面民을集合케하고民大의趣旨를說明한後鶴橋面支部를組織하얏다는데그當選된任員은如左 支部長尹相晚常務委員長丁奎植委員權昌淵韓圭興雜仁石徐正文外十一人(咸平)

銀波敎會發展

黃海道鳳山郡楚臥面銀波里耶蘇敎會에서는去九日부터一週間豫定으로牧師與應植氏를請하야復興會를開催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今般新入敎人이三十名에達하엿스며禮拜堂을修理코자義捐金을多數히내엇다고(沙里院)

江景貯金宣傳

忠南江景郵便局에서는來二十六日에一般의貯金을大々的으로奬勵할目的으로宣傳비라를多數히配付한다고(江景)

端川에大講演

咸南端川何多面에서는過般來蠶業講習會를開催하고當地農村靑年二百餘名을講習케하던바去十四日該講習會修了式을擧行케됨을機會로하야講演會를開催하고演士李晟煥氏는『農村救濟와農民의使命』이란題로熱辯을吐하야聽衆五百餘名의게만흔늣김을주엇스며仍히一同에게五分間演說을試케하야各自의平素抱負와將來希望을說破케하는一大盛況을이루엇다는데이것이端川地方農村靑年의하나하나하겟더라(端川)

●慶銀張宴 當地慶南銀行常務取締役文尙宇氏는去十九日에當地商人(中國人及朝鮮人)四十餘名을鐵道호텔에招待(釜山)

●安城署長更迭 京畿道安城警察署長的場澤一氏는道警務課에本町署勤務로轉任되고其後任으로長湍警察署長鈴木貞治氏가지난十八日赴任(安城)

◇靑年其他集會◇

●道陽少年團定期總會 高興郡道陽少年團에서는去十六日道陽靑年會館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後任員을改選하얏다고(高興)

●佛敎靑年懇親會 馬山佛敎靑年會에서는去十七日下午七時當地佛達學院內에서新年懇親會를開하고會員三十餘名이會合하야講和와儈遠生徒의橫笛合奏로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고(馬山)

▲東萊佈敎堂成道記念 梵魚寺東萊佈敎堂에서는지난十三日에釋迦世尊成道記念式을擧行하엿는데特히夜에는本寺에서金敬注氏의『成道에서』란講演이잇서大盛況을이루엇다고(東萊)

▲主日學校卒業式 載寧長老敎主日學校第二十五回施賞式及三回卒業式을去十五日下午七時當地東部禮拜堂에서校長鄭澤裕氏閉會下로擧行하엿스며卒業狀授與式이잇섯는데有功한學生百七十名에게施賞이有한後同校長鄭澤裕氏의勸說로써閉會(載寧)

◇地方人事消息◇

▲磯野平北內務部長 平北道內務部長磯野千太郎氏는內務部各課長을帶同하고去十八日下午四時에當地에來着하야二日間豫定으로部廳各課事務를檢閱하고二十日에는愛國婦人會水害同情金을各面關係者에게分配하얏다고(宣川)

許生傳 (52)

長白山人

넷나라를두고(三)

달이다둥굴면 온다던 온다던 새나라이 둥글어던달이 다시이즈러지기를 시작하여도 아직도 보이는것은 밤낫보아야 꼭갓흔 물人결뿐이외다 사람들은차차지리한생각이나기시작하엿슴니다

『아이구이놈의바다!』

『커놈의원수엣물人결!』

『하늘도실人소 달도별도다실人소 풀이보고십소 나무가보고십소』

『아이구산이보고십허 풀이나나무는볼팔자가못되더라도 발가버슨 산만이라도보고십허!』

『산이니강이니 말을마오흙이보고십허요 흙냄새를맛고십소』

『흙이야흙이야 흙한번만만저보고죽엇스면』

이모양으로 사람들이흙을생각하게되자 지금까지 종용하던배人속이 와글와글하기를 시작합니다 밤낫또갓흔 사람들과마조안젓스니 할말이잇나 밤낫보는 그얼골들외지도 컴컴보기시르른증이생겨서 마츰내는 서로외면을하게되고 이사람의 얼굴을안보자니 저사람의 얼굴이 보이고저사람의 얼굴이 보기시려서고개를돌리면 또 그것헤는사람의얼굴이 보이고『아이구 엇저면이보기실흔 얼굴들을 아니보고살랴나』하고화증을내어 소리를지르는이도 잇습니다 그러나밧게나가면 또 밤낫보는 하늘과바다 『보고실흔것을아니보니 그만케화증에 못견듸어 갑판우헤필석주저안저 발버둥을치고 울게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흙잇고나무잇는데로 돌아가자』하고사람들은 밋친드시날뛰입니다 허생이 한배에셔도 이와가치 사람들이 반이나 미쳐뒤다가도 허생원이 태연히 배人머리에서서 멀리압흘내다보는것을보고는 스르르맘이가라안즘니다

이모양으로 사람들이 반이나미처갓고 롭고 업더지고 잡바지고 누어뒤엇다 하는동안에도 배들은 여전히 북풍을 잔뜩바다 남방으로 남방으로 날라갑니다

다날이차차 더워져서 사람들은 겹것을버서버리고 홋것을 내어닙게되던 엇던날 새벽붉은해가 부글부글 끌는붉바다에서 쑥올라올때에 저압흐로 뾰족하고파란산봉오리가 하나이 그빗을바다우헤 환하게빗남니다 어듸서누가먼커보앗는지는 모르거니와

『흙이다 흙이다 산이로고나!』하고 수천명의소리가 한꺼번에 울어낫슴니다

『산이다 산이다 분명히산이다』

『야 ── 남조선이로구나 오기는왓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주라 ─ 주흙시고』

이모양으로 흙은얼신얼신 춤을추고 흙은나오는대로 소리를지르고 흙은넘어나 조화서뽐부림을하고울고 또흙은 두팔을버리고미친사람모양으로공연히배우흐로이리뛰고저리뛰고왓다갓다오르락나리락합니다 이때에는배人머리에섯던허생의푸른코스물흐르는얼굴에도감출수업는우숨이벙그레러졋습니다 그러나그우슴은얼마아니하야슬어지고눈이약간가늘어지며 량미간에두어줄주름이 잡힘니다 이것을보고 겻헤서것버뒤든 돌이가

『생원님 왜무슨걱정이계십시오?』하고 허생을치어다보며물은족 허생은눈으로 하늘한쪽을가르칩니다 돌이가

『거긔무엇이잇서요?』하고허생이가르치는곳을 바라보쥬 주먹만한검은 구름人장하나가 보일락말락하게 떠잇슴니다

『그게 엇재요?』하고 돌이가물은족 허생은 한숨을쉬며

『곡 하로만 먼저배가 닷더면 커것을맛나지아니할것을 지체하기때문에 큰고생하게되엿고나』하고 고물(배뒤)로돌아가 키잡은 늙은사공을보매 늙은사공의 얼굴에도 근심의빗이보이며

『생원님 커구름人장이암만해도수상합니다』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러하는동안에벌서 그구름人장이 여러가지로 모양을변하며 컴컴 커집니다

質疑應答

一、『質疑』는日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隨時本欄으로써發表함

一、『質疑應答』에限하야必히朱書로『質疑係』라明記함을要함

【問】나는十九歲의女子외다우리나히된女子에게京城內에서普通程度부터中等程度外지速成으로敎授하는學校는업슴닛가(金瑛郭영자)

【答】朝鮮女子敎育協會에서經營하는權花學院에서初等中等의敎育을합니다仔細한것은京城齋洞該學院에問議하시오(記者)

THE DONG-A ILBO.

SEOUL, KOREA, TUESDAY, JAN. 22nd., 1924.

MORE INTEREST IN CHINA DEMANDED.

BY Y. T. PYUN.

We are only too often indifferent to things of vital interest to us. Such is, no doubt, the Korean attitude toward China. By contiguity, by long historical relation, though interrupted recently, by economical considerations, China demands our closest attention and even respect. Though it is beyond any doubt that this indifference toward China is not so much due to our natural apathy as to our abject political dependency, we are to blame if we do not make an effort to show our concern and friendship for her and for her subjects. Suppose the Korean were master of his own affairs, he would instantly feel what a momentous role the relation between himself and China would play in his career. Indeed, it is by no means disheartening to note an apparently growing tendency among us to watch the developments in China with deeper concern.

Next only to Korea, Japan, too, is in a situation to carry favor with her continental neighbor and win her trust at all cost. Japan's future, especially her economic future, hangs largely on the degree of success she will achieve in removing China's deep-seated misgivings toward her and thus making it possible for her to lend a helping hand in stabilizing China politically. But "how" is the question. Except to some badly shortsighted politicians, to whom things away off are utterly beyond cognizance, it can not but be clear that no half-measures, no set of fair words can smooth the situation.

Considering the incalculable loss to Japanese commerce in China, at a time when Chinese aversion to Japan is, at best, passive, due to her present political helplessness, what gigantic calamities has Japan not to fear when once China gets on her feet? To prove "a friend in need" to China now is the only way of material salvation for Japan. But will China betake herself to the nation for help, that practises nothing short of cultural and industrial vandalism on a weak sister nation while under her power? The yearly outpouring of Koreans by tens of thonsands into Manchuria and the inpouring of nearly as many Japanese into Korea under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tell their own unmistakable tales. These humble facts are more than an offset against elaborate and costly propaganda. There is much reason for the Chinese dread of Japan. Is not something radical necessary now to ward off the coming doom of the Orient growing out of this deplorable situation?

To be continued.

英文欄

中國에對한等閑(上) 卞榮泰

金銀白金

德力本店出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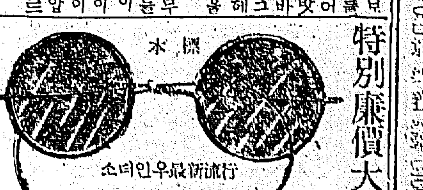
京城明治町 電本一五七二番 振替京城二三四番

印章紛失廣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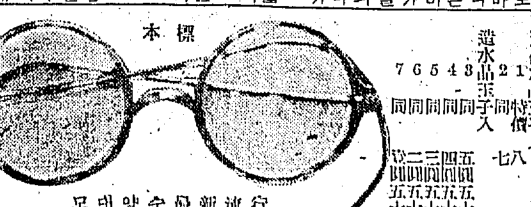
本人의實印圓形木刻印章을今月十九日午前에密陽驛前에서遺失하얏기玆以廣告함

密陽郡山外面南沂里 孫振現白

特別廉價大賣出



◇우인더소之部
天然水晶玉子入 特價 七八圓
1 同 特價
2 同 五圓五十錢也
3 同 四圓五十錢也
4 同 三圓五十錢也
5 同 二圓五十錢也
6 同 一圓五十錢也
7 同



洋玳瑁之部
天然水晶玉子入 特價 五圓五十錢也
1 同 四圓五十錢也
2 同
3 造水晶玉子入 特價
4 同 四圓五十錢也
5 同 三圓五十錢也
6 同 二圓五十錢也
6 同 一圓五十錢也

【注意】三個以上은送料自擔 一時는必히送料先要

京城府文敎洞六九 眼鏡專門商 東新堂

日鮮文對譯

現行 書式大全

△菊版美本洋裝金文字入 ◎定價金貳圓 ◎送料十九錢【現金】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十一番地 振替口座京城一二一七六 實文館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六〇番 振替口座京城八二五五番 朝鮮圖書株式會社

整腸 長壽 良劑

ビオフェルミン 비오훼르민

粉末及錠劑有、知名藥店에서販賣함

主治 腸加答兒、消化不良、小兒綠便、下痢、便秘、腸結核、炎、膀胱炎、腎臟、斯、虎列剌、腸扶斯、一般腸疾病諸症

粉末三十瓦入 五十瓦入 錠劑五十錠入 百五十錠入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朝鮮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十八番地

合資會社 朝鮮護謨工業所

電話長一六一七◎振替京城七五七一

裡里官立農林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第一學年 約五十名(農科約二十三名 林科約二十五名) 第三學年

出願期日 大正十三年三月二十日限

詳細는本年一月十五日朝鮮總督府官報廣告를보시오

年利六割

東京青山北町七の四二 金声社

◎五人組樂隊器各種新荷着

歐米諸樂器及運動具

京城鐘路二丁目八十七番(中央青年會館向) 直輸入元 セヤマ洋樂器店

電話光化門一二三番·振替京城一〇七五六·私書函京城局六番

產業界

新年號 (定價一部三十五錢)

京城府寬勳洞一八三番地 振替京城三〇〇一番

朝鮮物產奬勵會發行

全道金融의趨勢
預金은增加貸出은不振

昨年十二月末의朝鮮內各地組合銀行의預金貸出을見하면預金總額은一億二千二百二十三萬三千圓貸出總額은一億四千五百七萬九千圓으로此를前月末에比하면預金은三百四十六萬九千圓貸出金은百十五萬圓의

增加 인데預金이增加한것은年末에際하야一般商人의外上代金이稍히順調로回收된關係도有할지오貸出金의增加가不振하얏슴은一時旺盛하얏든米穀資金의貸出이一段落을告한後에新히投資材料가無하고兼하야震災後의年末임으로一般히消費節約을實行한結果商品의賣出이例年에比하야閑散하야歲末景況이甚히不振하얏슴으로資金의需要를喚起치아니하엿슴이主要한原因이라할터인데尙且此를前年同月末에比하면預金은五百三萬九千圓貸出金은千百六十四萬九千圓의增加를示하얏슴으로越年과共히大決濟를經過後의恒例로幾分貸出金의

回收 가行한다하야도大體로特甚한收縮을見함에至치아니할지며此에加하야舊曆年末을目前에當하얏슴으로或은反히相當한膨脹을見할지도未知이라今에朝鮮內各組合銀行의預金貸出을昨年十二月末과前月末及前年同月末現在는左와如하더라

預金

	十二月末	前月末	前年同月末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貸出

	十二月末	前月末	前年同月末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單位千圓)

鮮銀券又膨脹

鮮銀券發行高는年末最高時의三十五日頃보다約一千萬圓이減少되야本月十一日의一億五十七萬七千餘圓을最低로十九日에는三千二十數萬圓이增加되얏는데年初의年末의膨脹率이高하얏슴은年末回收順調와相俟하야減少하얏스나其後米價高騰으로此資金의出廻가相當히有하고舊曆節季의接近과本月부터二月에亘하야諸會社의配當期인關係上鮮銀券은反히膨脹하게되얏다더라

農村과株式投資
資金은日本에流出

農產物의增收와好價에依하야農村에散布된資金이如何한形態로市場에現出되느냐함은今年의朝鮮經濟界에一大興味잇는問題이다이것이生產化되고不生產的으로消費되며投資되야朝鮮外에放出되는가함은朝鮮經濟界의消長에大影響이잇스니株式投資가生產的投資인가不生產的投資인가함은議論의餘地도잇스나善良한株式投資는產業의伸展助長에效果가잇다現在最近農村의狀況을보면

株式投資 의氣勢가濃厚하는中인데다만最히憂慮할바는此農村의株式投資가朝鮮의事業會社를不顧하고日本에個注되는일이다最近南鮮地方의大中農들사이에株式市場의變化가注目되는것은顯著한事實인데郵船株、砂糖株、電氣서멘트等日本事業株에注入되며投機株로도不自然한京取株보다는大新株가多數買入된다못처럼流入된資金이如斯히또朝鮮外에流出되려함은朝鮮產業開發上不少한惡影響이잇슬것이다

手形交換激減

京城手形交換所의一月十四日以後十九日外지의手形交換高는枚數二萬二千四百四十六枚金額一千百二十萬二千四百四十五圓인바此를前週中交換高에對比하면枚數는一萬二千七百六十七枚金額은二千百二十二萬二百二十二圓의激減인데前週中證書別交換高는左와如하더라

種類	枚數	金額
小切手	[illegible]	[illegible]
爲替手形	[illegible]	[illegible]
約束手形	[illegible]	[illegible]
政府預金	[illegible]	[illegible]
小切手	[illegible]	[illegible]
郵便爲替	[illegible]	[illegible]
公債々券	[illegible]	[illegible]
同利札	[illegible]	[illegible]
維證票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經費賦課輕減
商議役員會決議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旣報와如히十九日役員會를開하고

一、大正十三年度豫算及經費賦課徵收方法

一、京畿道知事의諮問事項計量을正確케할方法

以上二案을附議한바計量問題는原案을可決하야二十一日答申하기로하얏고第一項豫算은七萬三千百六十二圓으로前年度八萬九千百八十四圓에比하야一萬六千十八圓을減하고歲出은可及的節約하기로하얏스며賦課率은營業稅에對하야百分의十六으로前年度第一期에比하야百分의二를引下하야第二期에比하야百分의一을引下하기로하야財界不況에順應하기로하고來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開하는定期評議員會에附議하리라더라

各地賦課率
元山은最高、京城은最低

京城商業會議所는別項과如히大正十三年度經費賦課率을營業稅에對하야百分의十六으로內定한바이케十二年度全鮮各會議所의比較를보면京城은最低元山은最高인데賦課率은左와如하더라

元山	百分之四十
大邱	百分之三十七強
群山	百分之三十七
鎭南浦	百分之三十五
木浦	百分之三十
平壤	百分之二十六
釜山	百分之二十五
元山府稅에對하야	百分之二十五
京城 第一期	百分之十八
京城 第二期	百分之十七
京城 十三年度	百分之十六

右中仁川은國稅를標準한結果實際率은此以上이되고府稅를標準치아니하고且日本은國稅의性質도異하나大都會일수록低하야東京市과如함은百分의一이더라

殖產貯蓄預金
昨年中百八十七萬圓增加

殖產銀行貯蓄預金은大正十年末五萬一千百七十八人百五十八萬二千四百四十八圓七十三錢이든바十一年末은六萬五千八百四十四人三百三萬二千百九十九圓四十十錢으로一萬四千六百六十六人百四十四萬九千七百五十圓六十八錢의激增이며更히大正十二年은

普通預金	[illegible]	[illegible]
殖產積金	[illegible]	[illegible]
定期豫金	[illegible]	[illegible]
据置預金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을激增하얏는데年末現在高는左와如하더라

普通預金	[illegible]	[illegible]
殖產積立	[illegible]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illegible]
据置預金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外國郵便爲替

昨年中輸入超過와例의關東震災의結果로復興材料의輸入과在外正貨拂下中止의影響을受하야外國爲替市勢의暴落을告하얏슴은亦是外國郵便爲替에도波及되야各郵便局所振出到着의外貨換算率에顯著한變動을見하얏다

元來 郵便爲替의市勢는一週에一度式此를쉬우는바昨今과如히急激한變動을見하야到底히一週一度의立價로는機에應키難함으로一昨日은英貨振出一磅九圓七十五錢弱一志四十九錢弱一片四錢強到着一磅九圓七十錢弱一志四十四錢強一片四錢強米貨振出一弗二圓二十六錢弱到着一弗二圓二十五錢弱이라는市勢로一擧에英貨一磅에七十二錢米貨一弗에二十錢이라는暴落을示하얏는바政府도此市勢의恢復에는苦心하야今回外債一億圓의成立을見하얏고今日에市勢를改立하야英貨振出一磅九圓十九錢弱一志四十六錢弱一片四錢弱到着九圓四錢弱米貨振出一弗二圓十七錢弱英貨到着一志四十五錢強一片四錢強一弗二圓十六錢強으로하야英貨一磅에約五十錢米貨一弗에約十錢假量引上하얏슴으로遞信局에서는此趣旨를郵便局所에電報通知한바此最氣는아마當分間持續할모양이다(遞信局某當局者談)

銀行去來停止處分

京城手形交換所一月十四日以後十九日에至하는一週間의銀行去來停止處分者는合計六名인바前週十一名에比하면五名의減退이더라

燃料商組合總會

京城燃料商組合에서는來二十三日午後二時부터商業會議所會議室에서組合員總會를開하고日本送燃料問題에就하야協議한다더라

鮮銀帳尻 (十九日)

發行高	[illegible]
準備正貨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財海餘波

▲總督府에서大正九年부터十五個年計畫으로着手한所謂產米增殖에伴한土地改良事業은每年豫算削減의結果로到底히所期의計劃을遂行치못하야▲目下의狀態로는當時의豫定이든四十萬町步의改良과九百萬石의增收는可望이無하리라한다▲此에對하야一部에서는外債에依하여서라도所期의目的을達함이可하다고主唱한다든가▲產米增收가必要한것은何人이라도首肯할바이나其理由는朝에依하야서라도成을急히하는것이라一면에는鮮及朝鮮人의富力을增進함보다도日本食糧問題의解決을急히하고자함에잇슴을아러야된다

商勢浮動
場面閑散

休日翌의二十一日朝各地는初報各少高少低를告하얏스나步調는昏迷不定으로閑散을不免하얏는바이케各地入電을보면大阪短期大新은八十七圓九十錢에付하야卅錢의少低이나止價는八十八圓九十錢으로一圓의高調를示하고同鍾新二百九十圓三十錢으로一圓五十錢의少高이며定期大株는百五十二圓三十錢으로一圓十錢의低價로同新株는八十九圓三十錢으로二十錢의高價이며安東安取는十九圓을報하야少低를示하얏더라

大新低付後高

前日後場大阪止價八十八圓二十錢에比하야九十錢의差落八十七圓三十錢에止한短期大新은今朝大阪付價少低를報하야八十六圓九十錢에付하나四十錢의少低이나大阪의後高를報하야漸高八圓十錢外지에達하얏다가다시反落하야七圓八十錢으로止한바大阪에比하야亦是二圓十錢의差落이며賣買도少하더라

京取漸次低落

漸次低落을보히든京取株는前日後場에는三十四圓五十錢에止하얏든바아무强材를發見치하고依然히昏迷한狀態로例의市場持株處分案發表를待하는中今朝에는三十四圓十錢에付하얏스나畢竟二十四錢에步하야三十四圓外지를現出하고少高에止하고長期當限은三十四圓十錢에付하고先限은三十四圓七十錢에止할뿐으로賣買不多하야頗히沈滯狀態를呈하얏더라其他는短期安取十八圓九十錢의一步가有할뿐이오長期各新株는모다保氣勢이더라

京株賣買高

廿一日의京取市場의賣買成立高는如左하더라

甲部	三十枚
乙部	―
短期	四千四百十枚

株式市場
京取主力株比較

株名	前日終價	廿一日始價	比較
京取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同	[illegible]	―	[illegible]
仁新同	[illegible]	―	[illegible]
安取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取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取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電報 (廿一日着電)

英米爲替	四弗廿三仙四分의三	(四分의一低)
스	百弗二分의一	(二分의一高)
아니콘다	三十七弗	(八分의一低)
倫敦銀塊	卅三片二分의一	
米 棉	三十錢高	

日銀帳尻 (十八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千圓單位)

京城手形交換 (廿一日)

枚數	三二九二
金額	二、〇一六、四六五

日本金利 (十九日)

(一錢單位)

金利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月越物	―	[illegible]
六十日	―	[illegible]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京取市場賣買

二十一日前場京取市場賣買關係는左와如하더라

京取短期 閔浴鎬百枚市川南田中買에新田趙鎭寬白井洪般柱吉見買로三百八十枚

安取株 閔浴鎬賣成清買로七十枚

大新株 田中三百枚金調秀白樂三閔浴鎬市川趙鎭寬新田成清金龍有田白井買에吉見五百五十枚川崎定岡中村南買로千四百枚

京取長期 當限은新田賣買二十枚同先限은吉見賣成清買로十枚等

大阪株式 (廿一日 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大新	
付	[illegible]
高	[illegible]
低	[illegible]
止	[illegible]

鐘紡新 止 [illegible]

各地穀物市場

廿一日前場延取引時勢

	現物
京城 一月末 ―	二月中 ―
二月末 [illegible]	三月中 [illegible]
賣買成立高	[illegible]石
釜山 大豆賣買時勢 一月末 ―	二月中 ―
二月末 [illegible]	三月中 [illegible]
賣買成立高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石
大邱 大豆賣買時勢 一月末 ―	二月中 ―
二月末 [illegible]	三月中 [illegible]
賣買成立高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石
群山 大豆賣買時勢 一月末 [illegible]	二月中 ―
二月末 [illegible]	三月中 [illegible]
賣買成立高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石

物價

京城府公設市場小賣價는最近調査에依하면左와如하더라

特等白米	一升	[illegible]
一等白米	同	[illegible]
糯白米	同	[illegible]
麥	同	[illegible]
小豆 上	同	[illegible]
白 荏	同	[illegible]

京城綿絲布標準價

廣木三A	三〇〇〇
九A	三九〇〇
大A 刷	二九八〇
金剛山	二九三〇
金 閣	二六二〇
白頭山	二四六〇
晒木綿剛竹	二一〇〇
洋木飛犬18	一四四〇
世樂島	一二二五
玉洋木金册	一三二〇
進 軍	一三七〇
綿絲扇面16	一四六〇
雙女10	三八〇〇
	三〇〇〇

大阪綿絲 (廿一日 前場)

	寄付	大引
一月	二九八、〇〇	二九九、〇〇
二月	三〇一、九〇	三〇二、六〇
三月	三〇二、二〇	三〇四、八〇
四月	三〇二、九〇	三〇五、九〇
五月	三〇五、六〇	三〇七、五〇
六月	三〇四、四〇	三〇七、九〇
七月	三〇七、五〇	三〇八、五〇

各地期米比較

	前日後止	廿一日前寄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政界와各地場面

今日은日本에第四十八通常議會再開日이라한다以來政界의風雲은자꼬不安한空氣로漸々三派의連袂하야清浦內閣倒壞를絕叫하야開會劈頭에此案을題出하리라하는同時政府에서는若如此한時에는議會解散을唯一의武器로使用하리라하며以來絕對多數黨이라든政友會는分裂되여一個新黨을樹立하는同時에有力하다하든政友會는派競分裂을當하야一百五十名以上勢에加入하는等一時는昏迷狀態에達하는新黨新說파從此로活潑히開始하리라傳하는憲政會의暗中飛躍等이昨今에자못紛走한듯하야今日以後로日本에政界는果然風雲인가?雨인가?의境界線上에立하엿다고한다따라經濟界의反影을與하겟슴으로各地定期市場人氣는此를注目하는模樣이다

京株賣買價 (廿一日)

株名	前場當限	先限	後場當限	先限
京取 寄	[illegible]	[illegible]		
京取 止	[illegible]	[illegible]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				
鮮銀 寄	[illegible]	[illegible]		
鮮銀 止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				
殖銀 寄	[illegible]	[illegible]		
殖銀 止				
同新 寄				
同新 止				
實銀 寄	[illegible]	[illegible]		
實銀 止				
商銀 寄	[illegible]	[illegible]		
商銀 止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				
漢銀 寄	[illegible]	[illegible]		
漢銀 止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				
韓一 寄				
韓一 止				
東拓 寄	[illegible]	[illegible]		
東拓 止				
同新 寄	[illegible]			
同新 止				
朝土 寄				
朝土 止				
南電 寄				
南電 止				
京電 寄	[illegible]	[illegible]		
京電 止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				

株名			
京電 寄	[illegible]	[illegible]	
釜瓦 寄	[illegible]	[illegible]	
朝郵 寄	[illegible]	[illegible]	
朝燐 寄			
京南 寄			
金剛 寄	[illegible]	[illegible]	
滿鐵 寄	[illegible]	[illegible]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東亞 寄			
同新 寄	[illegible]	[illegible]	
勸債 寄			
朝債 寄	[illegible]	[illegible]	
鮮債 寄			
滿取 寄			
帝債 寄			

京取短期取引

廿一日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京取	―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川期米

一月廿一日前場 (保合)

九節	[illegible]	

一節

▲第一節 當中兩限은다不成에先限은大阪初付前日止價보다九十五錢으로初付하다 ▲第二節 當中兩限은다不成에先限은阪地二節은〇六錢이나三十錢三十七圓〇九錢이라歡軍은三十一圓二十錢을價보다十四丁錢하게三十一圓二十五錢에...

(二節以下) 地氣勢는오히려强硬하니五十八錢에始하야六十錢外지高價를示하니이에歡軍의猛烈한防戰으로五十錢外지歡步하다 ▲第五節 當은不成에中은九圓十五錢으로三十圓이오先限은九十五錢이더라 ▲第七節 當中亦不成에先限은四十錢이더라

二節	三十一圓五十錢
三節	三十一圓五十六錢
四節	三十一圓六十錢
五節	三十一圓六十三錢

低價	三十一圓四十三錢
公定 價格	
一節	三十一圓六十五錢
二節	三十一圓六十八錢
三節	三十一圓四十[illegible]

初付	三七、〇九	三七、二九
三節	三七、〇六	三七、一九
三節	三七、二九	三七、一七
四節	三七、二五	三七、二〇

天氣

日出	上午七時四十八分
日入	下午五時二十九分

晴後 [illegible]

부르々떨니는

今日此頃의寒氣

冷치안토록

冷케됨은女子의大敵

勿侮―勿恐하라

貴女의背後에는

保溫補血保健의中將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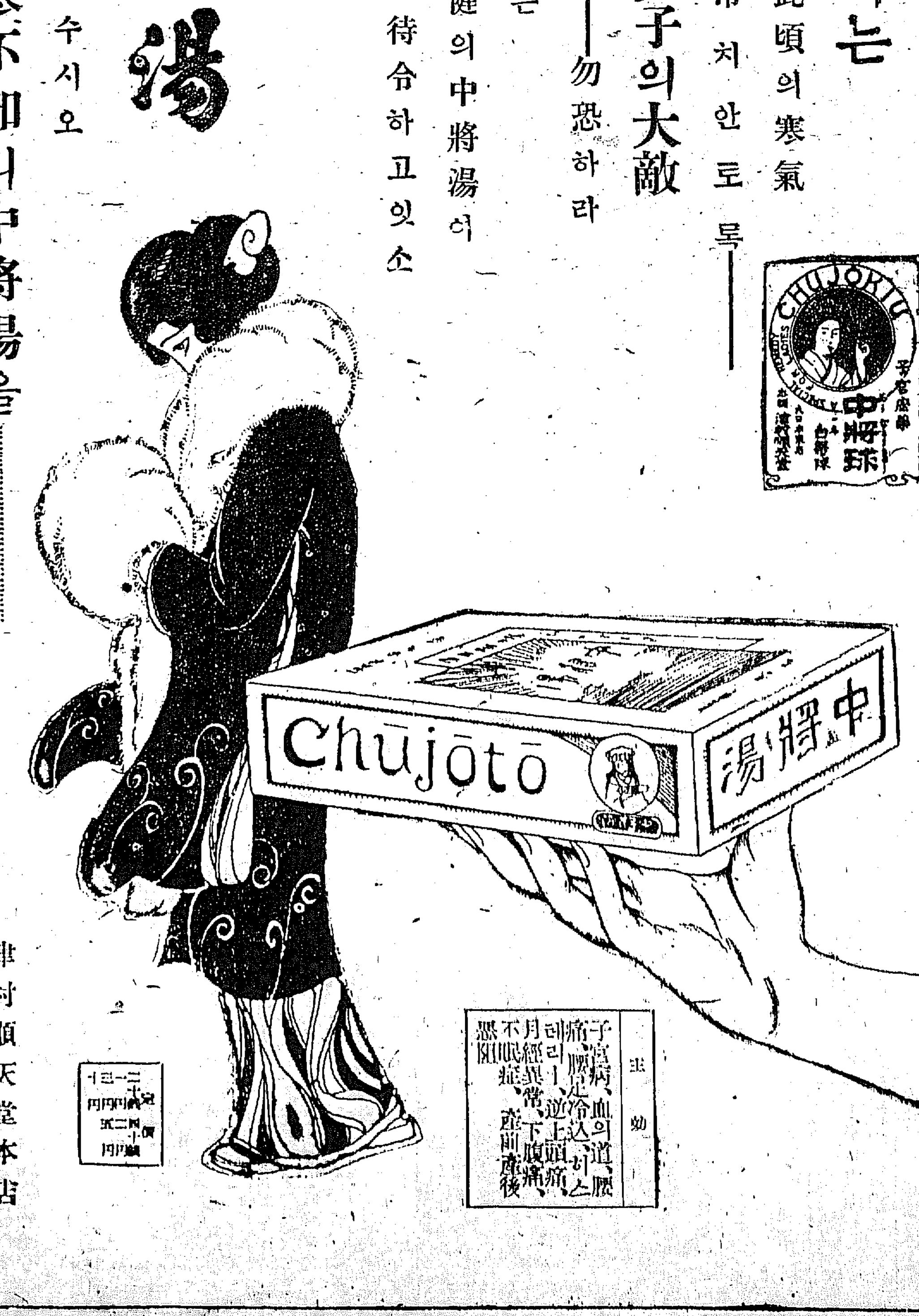
待令하고잇소

中將湯

곳잡수시오

寒不知의中將湯을

忘치못할中將湯



主效

子宮病、血의道、腰痛、冷込、혀스테리、逆上、頭痛、月經不順、下腹痛、不妊症、產前產後、惡阻

定價 二十日分 一円 / 四十日分 二円 / 一百日分 三円五十錢 ...

津村順天堂本店 東京市外上目黑五一〇 電話靑山二四七〇·一〇八〇

津村順天堂支店 大阪市南區大寶寺町 電話南二五·一〇六八 ...

中將球 CHUJOKIU

上等 毛布 半價處分

一組단지一圓五十錢

新柄特大判 二枚掛
半毛製大判 一枚續
改良茶色大判 一枚續
改良白色大判 一枚續
別上赤色大判 一枚續
本毛茶色大判 一枚續

京城 大陸고무

登錄商標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我고무靴界元祖 堅牢美麗